

도시주부의 시간절약서비스 지출과 관련요인 연구

A Study on Time-Saving Services and Related Variables

인제대학교 가정관리학과

조교수 제 미 경

동국대학교 가정교육학과

교 수 박 명 희

Dept. of Home Management, Inje University

Assistant Prof.: Jae, Mie Kyung

Dept. of Home Economics Education, Dongkuk University

Prof.: Park, Myung Hee

〈목 차〉

I. 서 론

II. 이론적 배경

III. 연구방법

IV. 결과 및 논의

V. 결 론

참고문헌

〈Abstract〉

This study examined the expenditure on time-saving services and related variables. The time-saving services are food away from home, delivery food, dry cleaning, clothing care, helper and total service.

The specific objectives of this study were:

(1) to investigate the differences in the expenditure on time saving services according to social economic and demographic variables.

(2) to investigate the differences in the expenditure on time-saving services according to role-overload, home goal orientation and work goal orientation.

(3) to investigate the independent influence of variables related to the expenditure on time-saving services.

For this objectives survey was conducted using interview. The data used in this study included 160 women living in Seoul from employed professional housewives,

employed non-professional housewives and non-employed housewives.

Statistical analyses were conducted using frequencies, percentiles, mean, oneway ANOVA, DUNCAN-test and multiple regression.

The major findings were:

(1) Wife's education, wife's age, income, tenure, level of living and employment status were significantly related to the expenditure on time-saving services by using the one-way ANOVA.

(2) Income, education, level of living, number of children, and employment status explained the variance of the expenditures on time-saving services about 20%-39% by using a multiple regression method.

I. 서 론

1970년대와 1980년대의 소비자시장에는 다양한 환경적 변화들이 일어났다. 그 변화중의 하나는 여성의 노동시장에의 참여가 증가하는 것인데 특히 주부의 취업은 그들 가족에 대한 역할과 소비행동에 변화를 가져왔다(Jensen, Rao, & Hilton, 1989). 소비는 시간과 화폐의 지출을 요구하고 특히 취업주부는 소비자로서 그들의 행동에 영향을 줄수 있는 화폐자원은 증가시킬수 있는 반면 시간자원은 증가시킬수 없기 때문에 시간압력에 직면하게되고 따라서 취업주부의 시간 가치는 올라간다. 소비행동에 대한 여성취업의 영향력을 설명하려는 시도는 1970년대 중반에야 비로소 실증연구에 나타나기 시작했다. 이 분야에 대한 연구는 가사노동과 여가에 대한 한정된 시간을 다루는 취업주부의 전략에 대한 것이었고, Berry(1979)는 이러한 소비자를 시간구매소비자(time-buying consumer)로 명하고 이는 시간의 희소성을 인지한 소비자가 자신의 시간을 재화와 서비스 구매로 대치하기 위해 고안한 소비자행동의 결과라고 했다.

주부가 취업을 하더라도 일정수준의 가사노동 시간은 필요한 반면 남편이 가사일에 보내는 시간은 주부의 취업상태에 따라 변하지 않고 있다(Nickols & Metzen, 1978; Walker & Woods, 1976; Nickols & Fox, 1983; 이연주, 1984). 또한 가사일과 가정여성의 주업무라는 전통적인 가치관과 직업일과 가정일을 성공적으로 성취하고자 하는 자신의 욕구와

주변의 기대때문에 취업주부의 경우 전업주부보다 역할과중(role overload)이 더 많다고 기대된다. 이러한 과중한 역할을 수행하는데 시간의 가치의 중요성은 재화의 생산방식에 영향을 주게된다. 시간은 축적될수 없는 자원이기 때문에 가계생산에 가능한 시간을 덜 가지고 있는 이인취업가계에서는 일인취업가계보다 시간이 더 가치있는 상품이 될수 있다. 따라서 취업주부는 가계생산에 시간을 소비하는대신 시간절약재화와 서비스를 구매함으로써 가사일에 드는 시간과 에너지를 절약하여 역할과중을 최소화하기위해 노력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가정일과 직업일간의 우선권 문제에서 개인의 가치를 가정일에 두느냐 또는 직업일에 두느냐에 따라 주부의 구매행동은 영향을 받을수 있다.

이러한 점에 착안하여 본 연구에서는 기혼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로 인하여 나타날수 있는 가정생활의 변화중의 하나인 시간절약서비스 지출이 어느정도인지 밝히고 이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사회경제학적, 인구학적변수, 역할과중, 목표지향성에 따라 분석하는 것이다.

이러한 연구는 최근 기혼여성의 취업이 증가함에 따라 기혼취업여성에게 필요한 시간절약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마케터에게는 취업주부를 대상으로하는 시장세분화전략에 필요한 정보를 줄 수있고, 가계지출결정과 주부가 일을 할 의사결정에 영향을 주는 서비스보조(예를들어 탁아시설, 국민학교 급식)등의 새로운 사회정책결정에 도움을 줄수 있는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II. 이론적 배경

1. 시간자원의 의미

소비자행동에서 시간자원의 역할은 오랫동안 간과되어 왔으나, 최근에 재화와 서비스의 구매와 소비에서 시간자원의 역할을 강조하는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다. 여기서는 경제학과 심리학에서 시간을 보는 견해를 살펴보기로 한다.

(1) 시간자원의 경제학적 의미

경제학에서는 시간을 화폐 또는 재화로 보고 시간, 화폐, 재화 사이에 대체관계(trade-off)가 일어난다고 했다(Linder, 1970). 모든 소비자들이 시장재화와 서비스에 대해 같은 가격을 가지고 있어도 주어진 효용을 획득하기 위해 시간에 대해 할당하는 가치는 실질적으로 다르다. 각기다른 최종재화는 시간과 재화의 비율이 다르기 때문에 대체가 일어나는데 재화에 대해 상대적으로 시간비용이 상승하면 각 최종재화의 단위당 사용되는 재화량을 늘리고 시간량을 줄이게 된다. 이러한 시간가치의 중요성은 재화의 생산방법에 영향을 주므로 시간에 대한 가치가 증가하면 주부들은 경제활동에 참여하게되고 편의식품 사용으로 요리시간을 덜 소비하고, 유아원, 캠프, 아이돌보는 사람의 사용으로 자녀돌보기에 시간을 덜 쓰게된다(Jacobs, Shipp & Brown, 1989). 경제활동에 참가하는 주부는 전업주부보다 가사일에 대한 시간의 한계가치가 더 높을 것이기 때문에 다른요소가 일정하다면, 취업주부가족은 가계생산에 시간을 덜 사용하고 구매된 재화를 더 사용하는 경향이 있을 것이다(Linder, 1970; Becker, 1965; Michael & Becker, 1973).

(2) 시간자원의 심리학적 의미

소비자행동에서 시간의 역할을 경제학적 접근방법을 사용한 것과는 달리 심리학에 근거하여 시간소비를 분석한 연구들이 있다(Voss & Blackwell, 1979; Wilson & Holman, 1984). 시간은 화폐와는 달리 고정된 재화이므로 소비자행동의 중요한 차원이 된다.

시간공급이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행동은 상호 의존성이 있고 탄력적인 시간배분이 중요하다. 시간절약은 정확하게 한 사건에서의 시간지출 감소가 다른 사건을 일으킬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 시간균형 이론에서는 시간을 시간선택의 자유를 덜 가지고 생리적 사회적 필요성(잡자기, 아이돌보기)에 의해 제한되는 의무적 목적의 행동과 개인적으로 시간조절을 할 수 있는 임의적 행동(오락, 취미활동)으로 나눈 뒤 의무적행동과 임의적행동의 조합이 불균형하게 되면 균형을 위한 보상적행동이 일어난다고 했다(Chapin, 1974, p.37). 또한 의무적, 임의적 시간배분이 같아도 가계특성(여성의 취업, 가족생활주기, 교육수준, 소득 등)등의 전제조건이 시간배분을 다양하게 한다(Holman & Wilson, 1980).

미래사회에서는 시간은 점점 더 값비싸고 희소한 자원이 될것이다. 따라서 시간의 효율적인 사용여부는 사회생활의 성공여부와 생활의 질을 결정하게 된다.

2. 주부의 취업과 시간절약서비스 소비

주부의 취업과 서비스 소비에 대한 대부분의 연구는 가계생산이론에 근거를 두고 있다. 취업여성과 서비스 소비에서 가장 많이 논의가 되어온 부분은 외식에 대한 지출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지난 10년간 평균가족수가 1980년 4.58인에서 1990년 3.99인으로 줄었고, 1980년에 식료품비의 3.7%를 차지하던 외식비중(전체소비지출의 1.6%)이 1990년에 20.4%(전체소비지출의 6.5%)로 증가했다(도시가계연보, 1991). 이는 취업주부의 생활양식변화와 소득증가로 인해 가정내 생산활동이 변한 결과인데, 주부의 시간가치가 증가할 때 가정식을 외식으로 대체한다는 것이다. 여러연구들이 기혼여성의 노동공급증가는 가계생산에 가능한 시간을 감소시키므로, 식사생산에 덜 시간집약적인 재화인 외식을 더 소비한다는 것을 발견했지만(Ortiz, MacDonald, Ackerman & Goebel, 1981; Bellante & Foster, 1984; Jacobs et al., 1989; 이재희, 1989), 주부의 고용이 외식지출을 오히려 낮춘다는 연구(Foster, 1985; Lee & Brown, 1986)와

주부의 취업상태는 외식지출에 독립적인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연구(Goebel & Hennon, 1983) 등이 있어 주부의 취업과 외식지출과의 관계에 대한 결과는 일치하지 않고 있다.

그외에 주부의 취업상태와 서비스 지출을 조사한 연구들은 다음과 같다. 시간압박을 받는 취업주부의 경우, 남편과 자녀의 시간이 주부의 가사노동시간을 대체한다는 증거가 없기 때문에(Nickols & Metzner, 1978; Walker & Woods, 1976; Nickols & Fox, 1983; 이연주, 1984), 취업주부가족은 전업주부가족보다 외식, 종이기저귀, 아이돌보기서비스에 더 많이 지출을 하지만 가사서비스(domestic service), 개인지출서비스(personal care), 의복관리서비스(clothing care)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Bellante & Foster, 1984).

Yang(1988)은 1984년도 Consumer expenditure Survey 자료를 이용하여 주부의 취업과 서비스지출간의 관계를 조사한 결과 취업시간은 자녀돌보기서비스, 외식, 총서비스에 정적인 관계가 있고, 가사서비스와는 부적인 관계, 그리고 의복관리서비스와는 무관함을 밝혔다. Jacobs et al.(1989)은 Consumer Expenditure 1984-86년 자료를 사용하여 취업주부가족은 주부의 노동에 대한 기회비용과 관련있는 지출항목(자녀돌보기, 교통비, 의복비, 외식)에 더 소비한다고 보고했다.

취업주부의 시간절약재화의 소비에 대한 국내연구는 취업주부의 가사노동의 상품대체 또는 가사노동의 사회화에 관한 연구에서 찾아볼 수 있다. 가사노동의 사회화는 가사노동의 능률을 향상시키고, 여가 시간을 갖게 해주며, 주부의 취업 및 사회활동을 가능하게 해주지만(문숙재, 1990, p.167), 저소득층의 경우 저임금을 보완하기 위한 목적으로 가사노동의 수행이 강요되기 때문에 저소득층에 있어서의 주부의 취업은 반드시 가사노동의 사회화를 촉진 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볼 수 없다(이기영, 1987). 그러나 대부분의 연구에서 취업유무에 따른 가사노동의 사회화는 차이가 있었고(문숙재, 정지영, 1991; 조성은, 문숙재, 1991; 이정우, 이은주, 1992), 직업지위를 세분화하는 것이 취업·비취업의 양분화보다 시간

절약재화의 소비행동을 더 잘 설명해주는 변수라는 것을 제안하고 있다(이기영, 1987; 이승미, 1989).

3. 시간절약서비스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

(1) 역할과중

취업주부 가정에서는 각 가정이 지니고 있는 자원의 양과 질을 고려하여 다중역할을 관리해 나가야 한다. 주부의 능력은 유동적이기 때문에 이 역할을 수행하려는 주부의 동기에 따라 역할과중의 수준이 달라질 수 있다. 한편 기혼여성의 취업증가는 역할과중을 줄이기 위해 시간절약재화 및 서비스 소비를 증가시킬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지만, 취업여성의 집단은 동질적이지 않기 때문에 이에 대한 설명으로서 아주 소수의 학자만이 역할이론을 고려하는 것이 유용할 것이라는 점을 제시했다.

Reilly(1982)는 취업주부 가족과 편의품소비간의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서 역할과중을 조사한 결과 역할과중은 시간절약내구재소유와 약간의 정적인 관계가 있고, 편의식품소비와는 무관하다는 것을 발견했다. Foxman & Burns(1987)는 Reilly의 역할과중이론을 지지하면서, 이를 확장하여 남편과 주부의 역할과중을 동시에 비교하는 것이 주부의 역할과중만 고려하는 것보다 더 타당하다고 했다.

한편 역할과중은 시간제약에서 오기 때문에 역할과중보다 시간제약의 맥락에서 시간절약 재화의 소비정도를 고려한 연구들이 많다. 주부들은 취업여부와 직업지위에 따라 시간제약을 느끼고(이승미, 1989), 시간제약을 많이 느낄수록 시장재화나 서비스를 구매하는데(조성은, 문숙재, 1991), 전문직 주부는 확대가족의 경향을 띠며 라면을 제외한 편의품을 이용하고, 비전문직 주부는 라면을 이용하거나 여가, 수면시간을 줄이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승미, 1989). 그러나 시간제약과 시간절약재화의 소비정도는 관련이 없다는 연구도 있어(이정우, 이은주, 1992), 연구결과가 일치하지 않지만 본 연구에서는 시간과 에너지제약에서오는 역할과중이 시간절약재화의 소비를 설명하는데 중요한 변수라고 생각되어 채택하였다.

(2) 목표지향성

목표란 가치에 근거한 목적으로서 가치에 방향과 지향성(orientation)을 준다(Deacon & Firebaugh, 1981, p.44). 따라서 가사노동을 가치있는 것으로 인식할 경우 가사노동을 직접 수행하는 방향으로 의사 결정을 하기 때문에 시간절약 재화의 구매가 지연되고, 가사노동에 대한 가치가 낮으면 가사노동을 시간절약 재화로 대체하는 정도가 높아진다(이기영, 1987; 이재희, 1991; 문숙재, 정지영, 1991).

취업기회와 능력이 없다고 생각하는 주부들은 가사노동에 가치를 부여하고 자신의 역할을 합리화 할 수도 있지만, 현대에 와서 산업화와 생활수준 향상에 따라 소득획득을 위해 이미 취업을 하고 있는 주부들은 가사노동의 가치를 자신의 직업노동과 비교하여 평가하게 된다. 취업주부의 경우 가사노동의 가치평가가 높더라도 취업노동을 하고 남은 시간이 적기 때문에 다중역할 수행에서 초래되는 시간제약과 역할갈등은 피할 수 없다. 이때 가치 인식수준에 따라 극복전략이 다를 것이다. 목표는 가치에 근거한 것이기 때문에 가치를 가정일에 두느냐 직장일에 두느냐에 따라 목표가 달라진다.

Joag, Gentry & Hopper(1985)는 역할과 목표를 결합해서 취업주부와 전업주부의 편의품소비와 시간절약소비행동에 대한 새로운 근거를 제공했다. 그들의 견해는 Reilly(1982)가 제시한 것과 같이 역할과중은 총위치에 대한 수요함수가 아니라, 주부의 목표(바람직한 상태)와 역할(실제상태)의 조화가 여러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동기를 결정하고 차례로 구매행동에 영향을 준다는 것이다. 목표가 직업(career)인 취업주부는 가사일에서 역할과중을 느끼고, 목표가 가사일인 취업주부는 직장에서 역할과중을 인지한다. 인지된 역할과중축소전략은 전자는 가사일을 축소하고 후자는 직업일을 축소하는 것이다.

직업목표지향성은 가사일을 축소하는 것과 관련이 있고, 가정목표지향성은 가사일을 더 잘하는 것과 관련이 있으며, 목표는 다차원 변수로 고려되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목표지향성을 가정과 직업의 2차원으로 나누어 시간절약서비스 지출과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3) 사회경제학적·인구학적 변수

사회경제학적·인구학적 변수가 시간절약서비스 지출에 미치는 영향을 선행연구를 근거로 주부의 교육수준, 주부의 연령, 자녀수, 소득, 주택소유 및 주거형태, 이웃의 생활수준 별로 살펴 보겠다.

① 주부의 교육수준

취업주부의 경우 전업주부보다 가사일에 적은 시간을 소비할 지라도(Nichols & Metzgen, 1978), 취업주부는 가사일을 대부분 수행하기 때문에 비시장생산의 효율성과 관계있는 주부의 교육수준은 소비패턴에 영향을 줄 수 있다. 교육수준이 증가함에 따라 아이돌보기, 가사서비스, 외식지출이 증가한다(Bellante & Foster, 1984; Yang, 1989; 이재희, 1991; 문숙재, 정지영, 1991; 이정우, 이은주, 1992). 이는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재화와 서비스의 구입을 통해 가사노동을 간소화하고 합리화하려는 욕구가 강하고 새로운 상품을 받아들이는 것이 적극적이기 때문이다(이기영, 1987).

② 주부의 연령

대부분의 연구에서 주부의 연령과 시간절약서비스 소비는 부적인 관계가 있었다. 연령이 낮을 수록 외식의 이용도가 높아지고(이기영, 1987), 서비스 이용, 가사노동 사회화의 정도가 높아진다(이재희, 1991). 그러나 주부의 연령과 가사노동 서비스 사회화는 관련이 없다는 연구(문숙재, 정지영, 1991)도 있어 연구결과는 서로 일치하지 않는다.

③ 자녀수

자녀수의 증가는 가사노동 시간을 증가시켜 가사용 내구재, 시장대체품, 가사보조자등 서비스 전문인을 고용하게 만든다. 자녀수가 많을수록 주생활관련 서비스와 가족돌보기서비스를 더 구매하지만(이재희, 1991), 가사노동의 상품대체 수준은 낮아진다(이기영, 1987). 또한 6세이하의 자녀가 있는 가족은 없는 가족에 비해 아이돌보기와 가사서비스를 더 구매한다(Bellante & Foster, 1984; Yang, 1989).

④ 소득

소득은 청소, 세탁, 드라이 서비스와 정적인 관계에 있고(Nickols & Fox, 1983), 아이돌보기서비스의 경우 고소득층은 서비스를 구매하고 저소득층은 친

구, 친척에게 무료로 맞기고, 가정주부의 경우는 서비스를 덜 구매한다고 했다(Angrist, Lave & Mickelsen, 1976). 또한 소득이 높을 수록 외식, 아이돌보기, 가사서비스, 의복관리서비스, 개인지출서비스, 전체서비스의 소비가 많아지며(Bellante & Foster, 1984; Yang, 1989; 이재희, 1991; 문숙재, 정지영, 1991), 가사노동 사회화 수준이 높아진다(이정우, 이은주, 1992).

⑤ 주택소유 및 주거형태

주택소유와 시간절약서비스(아이돌보기, 외식, 개인관련서비스) 구매는 보완재의 관계이므로 정적인 관계가 있고, 의복관리서비스는 부적관계가 있었다(Bellante & Foster, 1984).

주거형태는 생활양식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시간절약재화의 소비와 관계가 있다. 아파트에 거주할수록 단독주택이나 연립주택에 거주하는 것보다 배달서비스, 특히 식생활과 외생활 서비스 이용도가 높아진다(이기영, 1987; 이재희, 1991; 문숙재, 정지영, 1991).

⑥ 이웃의 생활수준

대부분 가족들은 소득, 소비수준이 비슷한 준거집단에 속하게 되는데 남편의 소득이 준거집단의 소득, 소비수준에 미치지 못할때, 준거집단의 소득, 소비수준에 맞추기 위해 주부는 취업을 하게된다. 준거집단과 같이 되려는 노력에서 취업주부가족은 내구재와 서비스 구매를 늘리지만, 내구재는 대부분의 가정에서 이미 소유하고 있고, 비싸지만 되풀이하여 구매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편의식품등의 시간절약 비내구재나 세탁소, 외식등의 서비스를 전업주부가족 보다 더 구매하게 된다(Strober, 1977).

Ⅲ. 연구방법

1. 연구문제

선행연구에 따라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도시주부의 시간절약서비스 지출(외식비, 배달음식비, 세탁비, 옷수선비, 파출부비용, 전

체서비스지출)은 사회경제학적·인구학적변수(주부의 교육수준, 주부연령, 자녀수, 소득, 주거형태, 주택소유유무, 자신과 이웃의 생활수준, 직업지위)에 따라 각각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2〉 도시주부의 시간절약서비스 지출은 역할과중 및 목표지향성(가정목표지향성, 직업목표지향성)에 따라 각각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3〉 도시주부의 시간절약서비스 지출의 각각에 영향을 미치는 제변수들의 독립적인 영향력은 어떠한가?

2. 용어정의

① 시간절약 서비스: 주부의 가사노동 시간을 화폐로 대체할 수 있는 외식, 배달음식(중곡집, 분식집 등), 세탁(드라이, 양복다리기 등), 옷수선(단고치기, 지퍼달기 등), 파출부등의 서비스를 의미한다.

② 역할과중: 취업주부가 직장일과 가정일을 병행할 때 여러가지 역할 수행에 관해 시간과 에너지의 제약으로 그 역할을 적당하게 수행할 수 없을 때 느끼는 정도를 말한다.

③ 목표지향성: 목표지향성은 가정목표지향성과 직업목표지향성으로 구성된다. 가정목표지향성이란 목표가 가사일에 있는 주부이고 직업목표지향성이란 목표가 직업일에 있는 주부를 말한다. 주부의 목표지향성에 따른 소비행동의 문제는 가정일과 직장일 중 어느것이 더 좋고 어느것이 더 못하다는 문제가 아니라 개인의 상대적 선호에 따른 가치판단의 문제이다.

2. 측정도구 작성

① 시간절약서비스 지출: Bellante & Foster(1984), Yang(1988), 이기영(1987), 이승미(1989)의 연구를 참고로 하여 기초조사와 예비조사를 통해 외식, 배달음식, 세탁, 옷수선, 파출부, 특수고용등 6가지 종류의 서비스 지출에 대한 월평균 비용을 조사했다. 여기서 특수고용(조리사, 간병인, 이사대행등)서비스는 이용하는 주부들이 거의 없어(월평균비용=363

원) 분석에서 제외시키고 5가지 종류의 서비스 지출 비용만 사용했다.

② 역할과중척도: 이 척도는 주부들의 역할과중 수준을 측정하기 위하여 작성된 것으로 Reilly(1982)의 역할과중지수(role overload index)와 이기영(1987), 이승미(1989)의 연구를 참고로 17개의 문항으로 작성하였다. 응답은 '전혀 그렇지 않다'에 1점, '정말 그렇다'에 5점을 주는 5점 리커트 척도로 구성하였으며 점수분포는 17점부터 85점 까지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역할과중정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신뢰도계수(Cronbach α)는 .88로 밝혀졌다.

③ 목표지향성척도: 이 척도는 가계소비패턴이 목표와 관련이 있다는 Gentry, Joag, & Ekstrom(1991)의 연구를 바탕으로 하고 이기영(1987), 이승미(1989)등의 연구를 참고로 하여 가정목표지향성 6개 문항과 직업목표지향성 6개 문항으로 작성하였다. 각각의 목표지향성은 '전혀 그렇지 않다'에 1점, '정말 그렇다'에 5점을 주는 5점 리커트 척도로 구성하였다. 점수분포는 각각 6점부터 30점 까지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가정 혹은 직업 목표지향성이 높은 것이다. 신뢰도는 가정목표지향성이 Cronbach α = .70, 직업목표지향성이 Cronbach α = .76 으로 밝혀졌다.

3. 조사대상, 자료수집, 자료분석방법

본 연구의 분석에 필요한 조사대상은 연구의 목적을 고려하여 서울지역에서 취업주부와 전업주부를 대상으로 직업지위, 연령, 생활수준등을 고려하여 의도적표본추출을 하였다. 이 연구에서 전문직은 의사, 약사, 교수, 교사등의 전문직, 공무원, 사무직이 포함되며 비전문직은 판매직, 서비스직이 포함된다.

자료수집과정은 기초조사와 예비조사를 실시한후 1992년 9월 28일 부터 10월 4일까지 본조사를 실시하였다. 본조사는 동국대학교 가정교육과 3학년 학생들에게 면접요령을 설명한뒤 160명의 조사대상자에게 질문지를 주고 그 자리에서 지켜본후 회수해서 가져오도록 하여 질문지법에 면접조사의 장점을 첨가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 PC* 를 이용하여 빈도분포,

백분율, 일원분산분석, 단칸의 다중범위검증과 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IV. 결과 및 논의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특성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표 1>과 같다.

2. <연구문제1>의 분석

<연구문제1>을 분석하기 위해 시간절약서비스 지출에 영향을 주는 변수들을 선택하여 일원분산분석을 한뒤 하위집단간에 의미있는 차이가 있는가를 알아보기 위해서 $p < .05$ 유의수준에서 사후검증(DUN-CAN's Multiple Range Test)을 실시하였다.<표 2>

주부의 교육수준에 따라 외식, 세탁부, 파출부, 전체서비스 지출에서 의미있는 차이를 보였다. 사후검증결과 대졸이상 집단이 다른 집단보다 평균소비지출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내외의 여러연구(Bellante & Foster, 1984; Yang, 1989; 이재희, 1991; 문숙재, 정지영, 1991; 이정우, 이은주, 1992)들과 일치하는 결과로서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소득이 증가하고 시간에 대한 가치가 높아지기 때문에 서비스소비 지출을 통해 가사노동을 간소화 시키려는 것이다.

주부의 연령에 따라 의미있는 차이가 나타난 비목은 옷수선, 파출부, 전체서비스 지출이다. 사후검증결과 옷수선은 주부의 연령이 50대 이상인 집단이 나머지 집단보다, 파출부 및 전체 서비스 지출에서는 50대 이상인 집단이 20대, 30대 집단의 주부보다 서비스지출이 의미있게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부의 연령과 외식등의 서비스 이용은 부적적인 관계(이기영, 1987; 이재희, 1991)에 있다는 연구 또는 관련이 없다는 연구(문숙재, 정지영, 1991)와는 달리 정적인 관계를 보이고 있어 연구경향은 서로 일관되지 않는다. 주부의 연령과 서비스 지출이 정적인 관계를 보인 이유는 주부의 연령이 많아질수록 가계소득이 높아지므로 많은 비용의 서비스 지출이 가능하

〈표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변 수	집 단	전문직주부		비전문직주부		전업주부		전체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주부연령	20 대	4	10.8	4	10	14	17.7	22	13.8
	30 대	13	35.1	20	50	25	31.7	58	36.2
	40 대	12	32.5	10	25	30	37.9	55	34.4
	50대이상	8	21.6	6	15	10	12.7	25	15.6
	평균(S.D)	41.6세(9.7)		39.6세(8.7세)		39.4세(8.6세)		40.1세(8.9)	
주부학력	중졸이하	2	5.4	5	12.5	3	3.8	11	6.9
	고 졸	11	29.7	25	62.5	38	48.1	76	47.5
	전문대.대퇴	7	18.9	0		12	15.2	19	11.9
	대졸이상	17	45.9	10	25.0	26	32.9	54	33.7
주부소득	80만원이하	11	29.7	17	42.5			104	65
	81-120만원	15	40.6	15	37.5			31	19.4
	121만원이하	11	29.7	8	20			25	15.6
	평균(S.D)	109만원(61만원)		94만원(45만원)				59만원(67만원)	
총 소득	120만원이하	3	8.1	4	10	33	41.8	41	25.6
	121-200만원	12	32.4	12	30	32	40.5	59	36.9
	201-300만원	11	29.8	18	45	7	8.9	36	22.5
	300만원이상	11	29.8	6	15	7	8.9	24	15
평균(S.D)	256만원(122만원)		223만원(95만원)		159만원(105만원)		197만원(113만원)		
자녀 수	없 음	5	13.9	3	7.5	2	2.6	10	6.3
	1 명	6	16.7	6	15.0	23	29.5	35	22.2
	2 명	18	50.0	21	52.5	30	38.5	70	44.3
	3명이상	7	19.4	10	25.0	23	29.	43	27.2
	평균(S.D)	1.8명 (.9명)		2.0명 (.9명)		2.0명 (.9명)		2.0명 (1.0명)	

기 때문일 것이다.

자녀수에 따라서는 단지 세탁비에서 의미있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 사후검증결과 자녀수가 3명이상 집단이 다른 집단보다 세탁비지출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p<.05$ 에서는 유의하지 않지만 배달음식과 전체소비지출에서 자녀수가 3명이상인 집단이 1명이하인 집단보다 더 많이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나 자녀수의 증가가 가사노동시간 또는 노동량을 증가시켜 이를 줄이기 위해 서비스 지출을 한다는 것을 알수 있다.

전체소득에 따라서는 세탁비와 옷수선을 제외한 전 비목에서 의미있는 차이를 보였는데 201만원 이상의 소득집단이 다른 두 집단보다 외식, 배달음식,

파출부, 전체서비스 지출에 유의하게 더 많이 지출을 했고, 옷수선의 경우 200만원 이상의 소득집단이 120만원이하의 소득 집단보다 유의하게 더 많이 지출을 했다. 이는 소득과 시간절약재화의 소비가 정적인 관계가 있다는 여러 연구결과(Bellante & Foster, 1984; Yang, 1989; 이재희, 1991; 문숙재, 정지영, 1991; 이정우, 이은주, 1992)와 일치한다.

기존의 연구와는 달리 주거형태에 따라서는 시간절약서비스 지출이 유의하게 차이가 나지 않았지만, 주택소유 유무에 따라서는 모든 지출부문에 차이가 있었다. 차가에 비해 자가에 거주할 수록 모든 시간절약서비스에 지출이 더 많았다.

주관적으로 느끼는 자신의 생활수준에 따라서는

〈표 2〉 사회경제학적·인구학적변수, 역할과중, 목표지향성에 따른 시간절약서비스 지출의 일원분산분석

(평균지출:1,000원)

변수	분류 (N)	외식			배달음식			세탁비			옷수선			파출부			전체서비스		
		M	F	D	M	F	D	M	F	D	M	F	D	M	F	D	M	F	D
주부의교육수준	중졸이하(11)	209	*	A	32	47	A	1.4	1.76	0.0	0.0	***	A	302	**	A	746	8.50	A
	고졸(74)	369	3.23	A	9.0	11.2	A	2.1	1.76	14.6	14.6	6.65	A	746	8.50	A	705	15.8	A
	전문대퇴(19) 대졸이상(52)	287 549	11.9 25.4	A B	11.9 10.0	11.3 25.4	A B	2.7 4.0	1.76	15.8 86.7	15.8 86.7	6.65	B	705 183.7		B	705 183.7	15.8 86.7	A B
주부연령	20대(22)	32.3			4.7	13.2		1.8	*	0	0	*	A	51.9	*	A	83.1	3.80	A
	30대(57)	33.4	1.68		7.8	13.4		2.2	2.68	25.9	25.9	2.84	A	83.1	3.80	A	125.0	15.8	AB
	40대(52) 50대이상(25)	47.1 52.2	11.4 25.0		11.4 12.3	14.4 25.0		2.7 5.2	2.68	47.2 79.9	47.2 79.9	2.84	AB B	125.0 174.6		B	125.0 174.6	15.8 86.7	AB B
자녀수	1명이하(44)	36.7	.66		6.4	12.9	A	1.9	1.06	10.0	10.0	2.33		67.8			67.8	2.10	
	2명(67)	39.6			8.8	12.8	AB	2.7	1.66	48.6	48.6	2.33		113.5			113.5	2.10	
	3명이상(45)	47.2			13.0	22.2	B	3.8	1.66	49.9	49.9	2.33		136.0			136.0	2.10	
소득	120만원미만(40)	23.6	***	A	5.4	11.6	A	1.5	2.64	19.5	19.5	***	A	62.3		A	62.3	13.01	A
	120-200만원(58)	32.2	11.60	A	6.9	16.1	A	2.6	2.64	85	85	8.66	A	66.4		A	66.4	13.01	A
	200만원이상(48)	61.3		B	14.3	17.6	B	3.8	2.64	79.9	79.9	8.66	B	179.3		B	179.3	13.01	B
주거형태	아파트(78)	47.3	3.09		9.0	18.3		3.2	1.06	44.1	44.1	.51		121.2			121.2	1.38	
	단독(78)	34.9			9.6	12.8		2.4	1.06	32.4	32.4			93.8			93.8	1.38	
	차가(56)	25.5	***		6.3	8.0		1.7	*	7.1	7.1	**		48.6	***		48.6	1.38	
자신의생활수준	자가(100)	49.2	10.66		10.9	19.6		3.3	3.99	54.8	54.8	7.97		140.1	15.46		140.1	15.46	
	하(27)	22.3	**	A	5.0	10.0	A	1.5	***	3.6	3.6	***	A	41.9	***	A	41.9	15.45	A
	중(97) 상(32)	39.9 59.1	5.45	A B	7.9 16.7	13.4 26.0	A B	2.0 6.3	11.60	24.7	105.1	10.56	A B	88.5 219.7	15.45	A B	88.5 219.7	15.45	A B
이웃의생활수준	하(13)	20.0		A	3.2	6.5	A	.7		0.0	0.0	**	A	30.4	***	A	30.4	7.30	A
	중(99)	39.8	2.26	AB	7.9	14.4	AB	2.5	2.59	23.8	23.8	5.98	A	89.2	7.30	A	89.2	7.30	A
	상(44)	49.3		B	14.0	20.5	B	4.0	2.59	80.3	80.3	5.98	B	170.8	7.30	B	170.8	7.30	B
직업지위	전문직(36)	47.9	1.51		10.6	20.0	A	4.4	*	97.1	97.1	***	A	183.4	***	A	183.4	6.94	A
	비전문직(38)	45.4			9.0	10.1	B	2.2	2.93	24.5	24.5	8.25	B	90.3	6.94	B	90.3	6.94	B
	전업주부(78)	34.6			8.7	16.3	AB	2.2	2.93	18.5	18.5	8.25	B	81.0	6.94	B	81.0	6.94	B
역할과중	하(37점이하)(55)	51.8	*	A	7.3	15.6		3.5		41.7	41.7	.05		118.9	.48		118.9	.48	
	중(38-48점)(52)	39.8	3.21	AB	11.1	18.4		2.4	.95	35.8	35.8	1.08		110.2	1.40		110.2	1.40	
	상(49점이상)(49)	29.9		B	9.7	12.3		2.3		36.5	36.5	1.08		91.0			91.0		
가정목표 지향성	하(16점이하)(36)	36.6	2.44		9.1	16.1		4.5	*	43.6	43.6	1.08		110.1	1.40		110.1	1.40	
	중(17-21점)(75)	48.8			8.8	15.0	B	2.5	3.27	46.6	46.6	1.08		123.6			123.6		
	상(22점이상)(45)	31.1			10.2	16.0		1.8		18.9	18.9	1.08		77.9			77.9		
직업목표 지향성	하(16점이하)(47)	46.5	.78		11.8	18.3		2.8	.56	45.0	45.0	.18		124.3	.61		124.3	.61	
	중(17-21점)(57)	36.4			6.8	13.3		2.2		32.6	32.6	.18		92.5			92.5		
	상(22점이상)(51)	37.9			9.9	13.0		3.2		38.9	38.9	.18		105.4			105.4		

* p<.05 ** p<.01 *** p<.001

모든 서비스 지출에 유의한 차이가 났다. 자신의 생활수준을 '상'이라고 느끼는 집단이 '중' 또는 '하'라고 느끼는 집단보다 서비스 지출이 많았다.

주관적으로 느끼는 이웃의 생활수준에 따라서는 배달음식, 세탁소, 파출부, 전체서비스 지출에서 의미있는 차이가 났다. 이웃의 생활수준을 '상'이라고 느끼는 집단이 '중' 또는 '하'라고 느끼는 집단보다 배달음식, 파출부, 전체서비스지출이 유의하게 높았고, 외식, 세탁비의 경우 주관적으로 느끼는 이웃의 생활수준이 '상'인 집단이 '하'인 집단보다 서비스지출이 유의하게 많았다. 이는 Strober(1977)가 언급했듯이 준거집단의 소비수준에 맞추기 위해 서비스지출을 늘린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주부의 직업지위에 따라 전문직주부가 비전문직, 전업주부보다 옷수선, 파출부, 전체서비스 지출이 많았다. 이 결과는 직업지위가 취업유무보다 시간절약서비스 지출에 어느정도 더 중요한 변수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전문직 취업주부의 경우 시간가치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가계생산에 시간을 덜 사용하고 시간절약서비스에 지출을 한다는 가계생산이론을 뒷받침한다.

3. <연구문제2>의 분석

<연구문제2>를 분석하기 위해 일원분산분석을 한 결과는 <표 2>에 제시되어 있다. 먼저 역할과중은 평균이 50.6이고 가정목표지향성과 직업목표지향성은 평균이 각각 19.4, 19.3으로 모든변수들이 중간점을 상회함을 알 수 있다. 가정목표지향성과 직업목표지향성 점수가 비슷하게 나온 이유는 취업주부의 경우 직장생활도 중요하지만 부인, 어머니, 며느리로서의 임무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전업주부의 경우 가정일도 중요하지만 직업일에 대하여 가치를 갖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역할과중에 따라서는 외식을 제외하고 시간절약서비스 소비에 의미있는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는 역할과중과 시간절약재화의 소비가 차이가 없다는 연구결과(이정우, 이은주, 1992)와 일치한다.

가정목표지향성에 따라서는 옷수선에서 가정목표

지향성이 낮은 집단이 중간 또는 높은 집단보다 지출을 더 많이 했다. 이는 가사일에 대한 가치가 낮으면 시간절약재화의 대체정도가 높아진다는 연구(이기영, 1987; 이재희, 1991; 문숙재, 정지영, 1991; 이정우, 이은주, 1992)와 부분적으로 일치하는 결과이다.

직업목표지향성에 따라서는 시간절약서비스 지출이 차이가 나지 않았다.

4. <연구문제3>의 분석

<연구문제3>을 분석하기 위해 중회귀분석을 한 결과는 <표 3>에 제시되어 있다.

외식지출은 소득이 많을수록, 역할과중이 적을수록 증가하고, 이들 변수는 외식지출분산을 약 33% 설명한다. 이 두변수들의 상대적 영향력을 살펴보면 소득($\beta = .45$)이 역할과중($\beta = -.25$)보다 외식지출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치는 변수이다.

배달음식에 대한 지출은 자신의 생활수준($\beta = .26$), 소득($\beta = .24$), 자녀수($\beta = .22$), 주택형태와 이웃의 생활수준($\beta = .14$)에 의해 영향을 받았고 이들 변수들은 배달음식지출분산의 약 25%를 설명해 주고 있다. 단독주택에 비해 아파트나 연립주택에 살수록 배달음식에 더 많이 지출하는 것은 이전의 연구결과(이기영, 1987; 이재희, 1991; 문숙재, 정지영, 1991)와 일치하는 것으로 생활양식의 차이를 반영한다고 할 수 있다.

주부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자녀수가 많을수록 세탁비지출이 많아지고 이들변수들의 설명력은 약 28%이다. 이 두변수들의 상대적 영향력을 살펴보면 주부의 교육수준($\beta = .35$)이 자녀수($\beta = .20$)보다 세탁비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치는 변수이고 이 결과는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자녀가 많을수록 가계생산시간의 가치가 높아지고 편의지향성을 추구하고 시간절약을 선호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옷수선은 역할과중($\beta = -.18$)이 낮을수록 주관적으로 느끼는 자신의 생활수준($\beta = .23$)이 높을수록 전업주부에 비해 전문직취업주부($\beta = .23$)일수록 지출이 많았고 이들변수의 설명력은 약 20%이다.

〈표 3〉 시간절약서비스 지출의 중회귀분석

(단위:1,000원)

독립변수	종속변수											
	외식		배달음식		세탁		옷수선		파출부		전체서비스	
	B	β	B	β	B	β	B	β	B	β	B	β
역할과중	-.97***	-.25	.17	.13	-.11	-.06	-.08*	-.18	-1.07	-.11	-2.07*	-.16
가정목표지향성	-.09	-.01	.42	.13	.49	.11	-.13	-.12	-.99	-.04	-.40	-.01
직업목표지향성	.61	.07	-.18	-.06	-.38	-.09	.05	.05	.70	.03	1.36	.04
교육수준	2.06	.08	.41	.05	4.29*	.35	.18	.06	14.29**	.21	20.98**	.23
주택형태	.15	.002	3.91*	.14	1.75	.05	.06	.01	12.01	.06	15.87	.05
주택소유	2.76	.03	-1.34	-.05	4.25	.11	-.51	-.05	-8.79	-.04	-.61	-.002
자신생활수준	5.79	.10	5.09***	.26	2.65	.10	1.57**	.23	23.40*	.16	39.62**	.19
이웃생활수준	.15	.002	3.19*	.14	3.25	.11	.33	.69	17.47	.11	25.26	.11
주부연령	-.28	-.06	-.23	-.13	-.08	-.03	.04	.07	.06	.005	-.30	-.02
자녀수	5.00	.11	3.32**	.22	4.09**	.20	.75	.15	10.44	.09	21.69	.14
전문직/전업주부	2.03	.02	-1.74	-.05	5.52	.12	2.58**	.23	60.52**	.24	67.26**	.19
비전문직/전업주부	6.85	.07	-2.03	-.06	-1.16	-.03	.92	.08	12.47	.05	21.19	.06
소득(단위:만원)	.16*	.45	.03***	.24	-.02	-.13	-.002	-.05	.14*	.16	.31***	.25
상수	43.05		19.16		7.81		9.28*		76.23		151.45	
수정 R ²	.27		.18		.21		.13		.23		.33	
R ²	.33		.25		.28		.20		.29		.39	
n ^a	153		152		152		151		153		149	

a:missing data를 list wise deletion으로 처리하여 전체 n수에 차이가 남

* p<.1 ** p<.05 *** p<.01 * p<.001

파출부에 대한 지출은 주부의 교육수준, 자신의 생활수준, 직업지위, 소득에 의해 영향을 받고 이들 변수들은 분산의 약 29%를 설명한다.

전체서비스지출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은 소득($\beta=.25$), 주부의 교육수준($\beta=.23$), 자신의 생활수준($\beta=.19$), 직업지위($\beta=.19$), 역할과중($\beta=.16$)의 순이고 이들 변수들의 설명력은 약 39%이다. 그런데 역할과중이 높은 경우 오히려 시간절약서비스 지출을 덜하는 결과를 초래한 이유는 가정일과 직업일을 완벽하게 하고자 하는 주부자신의 강박관념과 가족원들의 기대로 인하여 역할과중을 느끼면서도 오히려 가정일을 해야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역할과중이 많아도 가정일을 서비스지출로 대체하지 않을 수도 있다.

V. 결 론

본 연구는 사회경제학적·인구학적변수, 역할과중, 목표지향성이 도시주부의 시간절약서비스 지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외식, 배달음식, 세탁소, 옷수선, 파출부 등의 시간절약서비스를 선정하여 서비스 지출의 주요 결정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일원분산분석과 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일원분산분석 결과 시간절약서비스 지출은 주부 교육수준, 주부연령, 소득, 주택소유유무, 자신과 이웃의 생활수준, 직업지위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역할과중과 목표지향성은 거의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회귀분석 결과 시간절약서비스

지출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소득, 교육수준, 생활수준, 자녀수, 직업지위등이며 독립변수들의 설명력은 20%에서 39%였다.

전문직 취업주부일 경우 제한된 시간때문에 가계생산에 가능한 시간이 적고 이중역할에 대하여 책임을 느끼므로 시간자원을 세탁소, 옷수선, 파출부 등의 시간절약서비스 지출로 대체하는 것을 알수 있고 교육수준, 소득, 생활수준등이 시간절약서비스 지출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이들 변수가 시간의 가치와 관련이 있으며 시간의 가치가 높아지면 시간을 다른 재화로 대체한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다.

앞으로의 연구에서는 여성이 가정과 직장이라는 두가지 세계속에서 자신의 이중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시간가치의 중요성이 정확하게 파악되어야 하며, 시간을 시간절약서비스로 대체함에 있어 주부들의 시간의 가치와 효율성을 측정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효율성은 측정이 어려우므로 시간절약이 정확하게 반영될수 있는 시간절약서비스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

역할과중이나 목표지향성 변수는 시간절약서비스 지출과 약간의 의미있는 관계밖에 나타나지 않았는데 역할과중이나 목표지향성에 대한 표준화된 척도가 정확하게 개발되어 주부의 가치가 지출행동에 어떻게 반영이 되는지 살펴보아야 한다.

【참 고 문 헌】

- 1) 문숙재, 가정생산, 신광출판사, 1990.
- 2) 문숙재, 정지영, "가사노동 서비스 영역의 사회화와 그 만족 수준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29(3), 1991, pp 131-152.
- 3) 이기영, "가사노동의 상품대체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87.
- 4) 이승미, "주부가 지각한 시간제약과 가사노동의 수행방안-전문직, 비전문직주부와 비취업주부의 비교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9.
- 5) 이정우, 이은주, "가사노동의 사회화 및 관련변인 고찰," 대한가정학회지, 30(1), 1992, pp 179-198.
- 6) 이재희, "도시가정의 가사관련 서비스 구매 및 만족요인에 관한 연구-주부소비자를 대상으로-", 중앙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1.
- 7) 이연주, "주부의 취업에 따른 가정내 역할수행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22(4), 1984, pp 131-145.
- 8) 조성은, 문숙재, "주부의 가사노동 시간관리전략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9(1), 1991, pp 95-111.
- 9) 도시가계연보, 대한통계협회, 1991.
- 10) Becker, G., "A Theory of the Allocation of time", The Economic Journal, 75, 1965, pp 493-517.
- 11) Bellante, Don & Ann c. Foster, "Working Wives and Expenditure on Services", Journal of Consumer Research, 11, Sep.1984, pp 700-707.
- 12) Berry, Leonard I., "The Time-Buying Consumer", Journal of Retailing, 55(4), 1979, pp 58-69.
- 13) Chapin, F.S, Jr, Human Activity Patterns in the City, New York: Wiley, 1974.
- 14) Deacon, R & F.M. Firebaugh, Emily Resource Management, Allyn and Bacon, Inc, 1981.
- 15) Foxman, Ellen & Alvin C. Burns, "Role Load in the Household," Advances in Consumer Research, 14, 1987, pp 458-462.
- 16) Goebel, K.P, & C.B. Hennon, "Mother's time on meal preparation, expenditures for meals away from home, and shared meals: Effects of mother's employment and age of younger child", Home Economics Research Journal, 12, 1983, pp 170-188.
- 17) Holman, R.H. & R.D. Wilson, "The Availability of Discretionary Time: Influences on Interactive Patterns of Consumer Shopping Behavior", Advances in Consumer Research, 7, 1980, pp 431-436.
- 18) Jacobs, E., S.Shipp & G.Brown, "Families of Working Wives Spending more on Services and Nondurables", Monthly Labor Review, 112, Feb. 1989, pp 15-23.

- 19) Jensen, T.D., C.P. Rao & R. Hilton, "Working versus Nonworking wives' Psychographic profiles : A longitudinal Analysis," *Journal of Business Research*, 19, 1989, pp. 255-265.
- 20) Joag, S.G., J. W. Gentry & K. Ekstrom, "An Investigation of a Role/Goal model of Wives' Role Overload Reduction Strategies," *Advances in Consumer Research*, 18, 1991, pp 666-672.
- 21) Joag, S.G., J. W. Gentry & J. Hopper, "Explaining Differences in Consumption by Working and Non-Working Wives", *Advances in Consumer Research*, 11, 1985, pp 582-585.
- 22) Linder, Stefan B., *The Harried Leisure Class*,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1970
- 23) Michael, R.T, & G.S.Becker, "On the New Theory of Consumer Behavior", *Swedish Journal of Economics*, 1973 pp 378-396.
- 24) Nickols, Sharon Y.& Edward J.Metzen, "Housework Time of Husband and Wife", *Home Economics Research Journal*, 7(2), 1978, pp 85-97.
- 25) Nickols, Sharon Y. Karen D. Fox, "Buying Time and Saving Time: Strategies for Managing Household Production", *Journal of Consumer Research*, 10, 1983, pp 197-208.
- 26) Orits, Bonnie, M. MacDonald, N. Ackerman, & K. Goebel, "The Effect of Homemakers' Employment on meal Preparation Time, Meals at home, and Meals away from home," *Home Economics Research Journal*, 9(3), 1981, pp 200-206.
- 27) Reilly, Michael D, "Working Wives and Convenience Consumption", *Journal of Consumer Research*, 8, 1982, pp 407-418.
- 28) Strober, M.H, "Wives Labor Force Behavior and Family Consumption Pattern", *American Economic Review*, Feb.1977, pp 410-417.
- 29) Walker, K.E and M.E.Woods, *Time Use: A measure of household production of family goods and services*, Washington, D.c.: American Home Economics Association, 1976.
- 30) Yang, Se-Jeong, "Expenditures for Services and Wife's Employment status," University of Illinois Urbana-Champaign, Master's Thesis, 1988.